

## 간협 '간호사인권센터' 설립한다

### 간호사들 오래 일할 수 있는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 태움 문화 등 개선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 임신순번제 등 모성침해-성희롱 등 인권침해 근절

대한간호협회는 간호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인권센터'를 협회 내에 설립한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인권센터 설립을 마련해 지난 10월 27일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검토했다. 우선 상담 플랫폼을 운영해 사례 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센터에서 근무할 직원 모집을 11월 30일 까지 진행했다.

간호사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된 취지는 병원 내 태움 문화, 임신순번제 등 모성침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를 시정

및 예방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속에서 간호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간호사인권센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약(MOU)을 체결한 후 △민원 접수 및 조사, 조정 및 권고, 소송지원 등의 조사·구제 업무 △간호계 인권 의식 향상 교육, 간호사 인권 관련 실태조사, 간호사 조직문화 개선안 연구 등 교육 및 연구 사업 △건강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권토론회 개최,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등 대외협

력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상담 및 피해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 보건 의료기관의 임신순번제, 임신부 야간근로 등의 각서 작성, 여러 유형의 폭력·성희롱 등을 포함한 인권 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보건 의료분야 여성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하는 등 간호현장에서 발생하는 간호사 인권침해에 관한 시정활동을 해왔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포항 지진 트라우마 예방 심리지원

### 현장심리지원단 활동 펼쳐 ... 정신간호사회 참여

11월 15일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포항 현장심리지원단'이 꾸려져 주민들의 지진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항시 대피소에 심리지원 상담부스를 설치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4시간 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현장심리지원단에는 국립부곡병원 등의 의료진이 11월 17일 투입됐다. 심리적 응급처치, 고위험군 선별과 사례관리 및 의료기관 연계, 고위험군 외 일반주민 대상 프로그램 등 재난 시 심리처치 단계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다.

심리적 응급처치(Psychological

Frist Aid)는 재난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은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돌봄과 정신적 안정 및 지지를 제공하는 초기중재 기법이다.

이재민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 대한 재난심리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5개 국립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간호사 등 19명이 11월 21일 확충됐다.

정신간호사회는 자원봉사인력풀을 구축해 간호사 인력을 지원했다. 포항시 대피소에 마련된 심리지원 상담부스에서 재난심리상담을 실시했다. 11월 25~26일 양일간 하루에 15명씩 총 30명, 11월 28일에는 5명의 정신간호사가 참여했다.

현장심리지원단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고위험군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수행한다. 집에 머무는 독거 어르신 등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해 방문간호사를 파견해 의료지원 및 심리지원 서비스를 병행한다.

지진 피해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잠을 못자겠다 △화가 나고 짜증이 많아진다 △멍하고 혼란스럽다 △불안하고 쉽게 놀라게 된다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안된다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근거림 등이다.

스트레스 증상은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나, 만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 이후에 심리적 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심리지원을 받으면 이러한 증상들이 앞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 모든 근로감독 시 성희롱 필수 포함

### 조직문화 개선 주력 ... 사내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263건, 2013년 370건, 2014년 519건, 2015년 522건, 2016년 556건이 신고됐다. 올해는 10월 기준 53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성희롱으로 간주된다. 직장 내 성폭력은 '위계, 위력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성접촉(간음행위 필수)' 행위로 정의된다.

정부가 발표한 근절 대책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성희롱 피해 신고 민원은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과태료 발착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를 강화한다. 사업장별로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하거나,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한다.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관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도록 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노사협의회

를 활용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도록 한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 국민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보급했다. 카드뉴스는 근로자용, 사업주용, 교육용 등 3종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스스로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를 앱으로 개발해 12월 초 보급할 예정이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전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적극 확산시킬 계획이다. 인사담당자 대상 교육지원 확대뿐 아니라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대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를 위해 캠페인 및 스피치아웃 행사 등을 펼칠 방침이다. 여성일자리 소 리한 운영을 통해 직장 내 성차별 관련 의견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윤호식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조직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제도뿐 아니라 조직과 사회문화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 환자안전사고 예방 주의경보 시행

### 환자안전 위험요인 사전 제공 ...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예방

###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문자 통보

낙상사고나 약물 부작용 등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 의료기관에 주의경보가 발령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Patient Safety Alert) 제도를 1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환자안전법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환자안전 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유사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환자안전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을 선별해 발령한다.

선정기준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 등장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 발생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급증한 경우 △사회적 이슈화된 사건 △유관기관에서 주의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전문가 분석과정에서 주의 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이다.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에는 환자안전사고의 구체적 사례, 예상

되는 위해의 유형 및 정도, 사고 위험요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다. 주의경보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에 공지되며, 병원별 환자안전 전담인력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발령된다.

주의경보 발령 이후 추가적인 환자안전사고 재발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동일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병원에서 이물질이 포함된 수액세트가 발견돼 환자에게 주입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주의경보를 발령하면 동일 제조사의 수액세트를 사용하는 모든 병원에 전파돼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 주의경보체계는 선진적인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요한 제도"라며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잠재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하는 등 환자안전 주의경보체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수집된 3060건의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사례를 분석해 주의 발령, 주제별 보고서, 통계연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과 유관단체 등에 제공하기로 했다.

주혜진 기자 hjoo@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정됐으며,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환자안전법 제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신경립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2015년 1월 28일자로 공포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사이트(www.kops.or.kr)'를 올해 8월 오픈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면으로 보고하던 환자안전사고를 인쇄나 우편발송 절차 없이 손쉽게 온라인으로 보고할 수 있게 됐다. 환자 및 환자 보호자, 보건 의료인,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 누구나 환자안전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검증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정보를 의료기관 전체에 공유해 학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학습함으로써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 행복한 간호사가 만드는 행복한 병원, 푸르덴셜생명이 응원합니다

푸르덴셜생명은 간호사분들이 행복할 때 환자 역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푸르덴셜은 간호사가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의 중요한 재정계획'에서부터 '자기관리 노하우'까지 모두 챙겨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푸르덴셜생명의 "찾아가는, 간호사 특별 세미나"를 통해 만나보세요!!

### "찾아가는, 간호사 특별 세미나"란?

푸르덴셜이 직접 병원 또는 인근의 모임 장소로 찾아가 간호사를 위한 세미나를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50인 이상의 간호사로 구성된 병원, 모임, 단체 등
- 세미나 구성 특강 1. 간호사 Dream을 완성하다!! 간호사를 위한 재무설계 솔루션  
특강 2. 간호사 Look을 완성하다!! 간호사를 위한 Make-up class
- 신청 및 문의 "찾아가는, 간호사 특별 세미나 담당자" 앞으로 연락주시요.  
전화 : 02-2144-2163, 2132 문자/카톡 : 010-5530-1881

